

# 활명수(活命水) 상표와 포장의 변천

## Change in Brand and Packaging HwalMeyongSu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많고 흔한 질병을 들 라면 위장장애, 소화불량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보고 놀라는 점 한가지, 많은 양의 식사를 빨리 먹는 것이라고들 한다.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차제에 두고 지금은 소화불량일 때 먹는 약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동화약품의 '활명수(活命水)' 상표와 포장변천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을 알아보자.

활명수의 시초는 1987년 당시 궁중 선전관으로 있던 민병호(閔竝浩)선생께서 궁중에서만 복용되던 생약의 비방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널리 보급하고자 서양의학을 접목하여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洋藥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경무총감부의 활명수 생산 허가를 획득, 동화약품(당시 동화약방) 생산을 맡으면서 국민들에게 사랑 받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 1912년 이후- 유사상품의 범람-

동화약방의 활명수가 유명해지자 유사상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1912년 당시만 살펴봐도 화평당약방의 '회생수(回生水)', 천일약방의 '통명수(通命

[사진 1] 활명수 포장, 라벨은 1962년의 것이나 상호와 영문자 외는 초기와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2] 1927년 11월 21일자에 게재된 재생당약방의 활명액 광고



水), 모범매약의 '소생수(蘇生水)', 조선상회의 '활명회생수(活命回生水)' 등이 있었는데 특히 조선상회의 '활명회생수'는 포장라벨에 '회생'을 아주 작게 표기 활명수로 보이게 했다.

일본계인 나카무라약관(후에 재생당약방으로 상호변경)은 1917년부터 '활명액(活命液)'을 발매, 활명수와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 2. 1919년- 방어상표의 등록-

재생당약방이 '활명액'으로 동화약방의 '활명수'의 시장을 잠식하자 동화약방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명액'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는데 이는 제품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방어용 상표로 기록된다.

## 3. 지속적인 지면 광고 실시

'활명수'는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이기 위해 이후 지속적인 신문 광고를 실시했다. 특히

[사진 3] 1919년 1월에 등록된 활명수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방어용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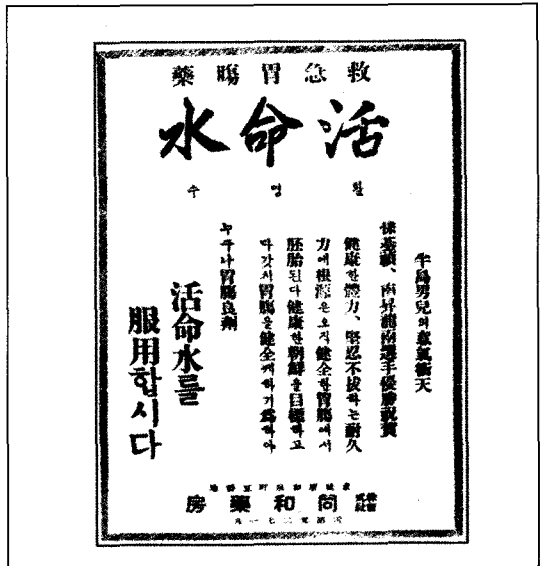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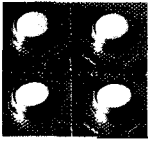
1936년 8월 11일에는 조선일보에 손기정, 남승룡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입상을 축하하기 위한 광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 4] 1929년 7월 29일자 매일신문 광고



[사진 5] 1936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 광고





[사진 6] 1940년대 당시의 활명수 포장작업, 유산지로 한 병씩 손으로 포장했다.



요가 많았던 이북지역의 시장 및 만주의 거대한 생산시설과 시장을 한꺼번에 상실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6.25로 인해 순화동 본사(현재의 자리)의 사옥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활명수의 생산이 일시에 중단되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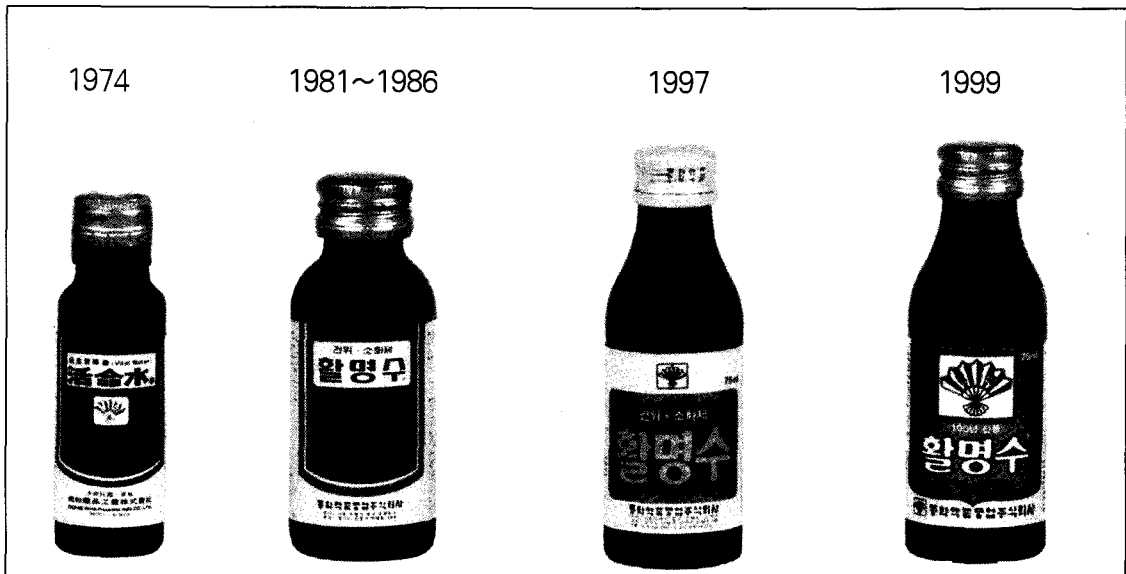
또한 혼란기를 틈타 ○명수, ×명수 등 유사제품

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게 됨으로써 '활명수'는 그 존재마저 위협받기에 이르렀으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를 타계하게 되었으며 동화는 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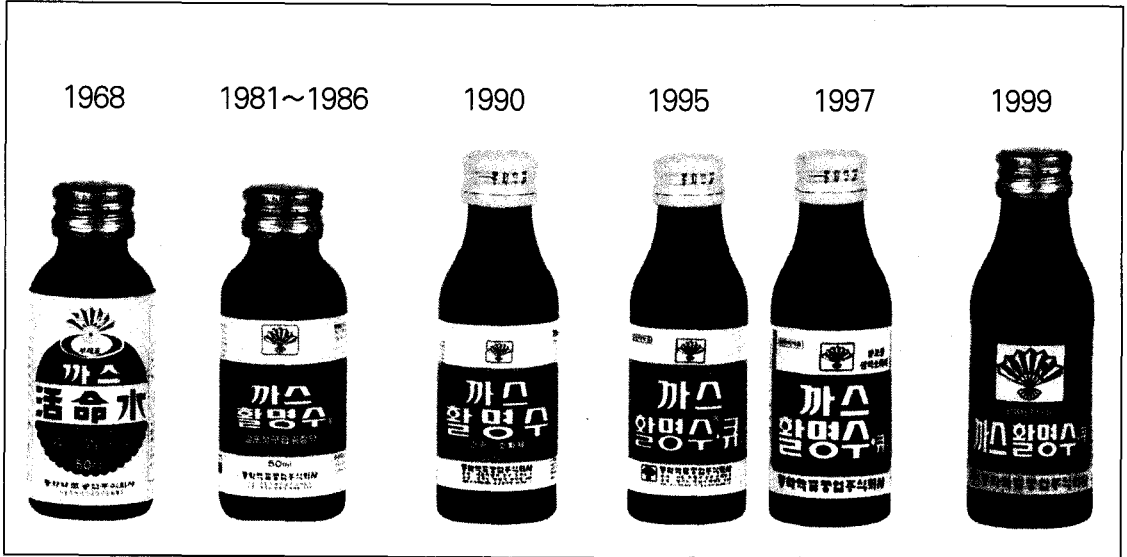
#### 4. 활명수의 시련

'활명수'는 이후 두 번의 시련을 겪게 된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갈리면서 이남에 비해 수

[사진 7] 활명수 포장 변천



[사진 8] 까스활명수 포장 변천



### 5. 까스활명수의 탄생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이다 콜라와 같은 탄산가스를 사용한 청량음료가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게되자 탄산가스를 넣은 발포성 위장약이 속속 등장해 '활명수'와 경쟁관계를 이루기 시작했다.

성보제약의 '까스마인'이 최초였으며 이후 타 제약회사의 '까스명수'는 1965년부터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대대적인 광고전을 실시했다.

과거 유사제품의 경쟁에서 모두 이긴바 있던 동화는 소비자의 기호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관만 하다 '활명수'의 아성을 위협받게 되고 '활명수'의 약효는 그대로 인체 탄산가스만을 주입한 '까스활명수'를 1966년 12월 탄생시키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까스활명수'와 '까스명수'는 경쟁을 하게 된다.

한가지 특기할 만 점은 '까스활명수'를 생산하면서 포장공정에서 과거 품질이 고르지 못한 재래식병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자 반 이상 파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초자로부터 자동병을 공급받아 대량생산을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활명수'는 200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의 대명사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어느덧 발매 100주년을 넘어서 우리나라 의약품 중 단연 최장수로 꼽히는 활명수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최첨단 정밀화학업종인 의약품 분야에서 life-cycle을 초월한 경이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민족의 약으로 우리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K]

자료제공: 동화약품공업(주)